

셔츠의 착용실태와 소재에 대한 주관적 선호감각

최 종 명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부교수)

셔츠는 재킷이나 슈트와 함께 착용하는 필수 아이템 또는 단품으로 거의 속옷처럼 피부에 닿는 면적이 커서 촉감이 다른 의복 아이템보다도 중요하다. 종래에는 흰색의 면 소재가 주로 착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색상의 셔츠가 판매되고 있고 소재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용도에 따라 드레스 셔츠와 스포츠 셔츠로 나눌 수 있는데, 대학생들은 캐주얼화의 경향으로 대부분 스포츠 셔츠를 즐겨 착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스포츠 셔츠 제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춘추용 셔츠 착용실태를 조사하고 소재에 대한 주관적 선호감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작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예비조사를 거쳐 보완한 다음 2003년 10월말에서 11월초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469명으로 남학생 212명(45.2%), 여학생 257명(54.7%)이었으며, 1학년이 57.6%로 가장 많았고,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34.5), 자연계열(45.4%), 생활과학계열(14.7%) 및 예술계열(5.3%)이었다. 조사된 자료는 설문 문항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산출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55.7%는 주 1~2회 셔츠를 착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착용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셔츠 소지수는 평균 4매로 나타났는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무늬 있는 셔츠보다 단색의 셔츠를 더욱 선호하였고 소지하고 있는 셔츠 또한 단색이 더 많았다. 소지하고 있는 색상을 조사한 결과 화이트(61.4%), 블루(49.0%), 베이지(38.8%), 브라운(34.8%), 그레이(24.5%)의 순이었는데, 여학생은 화이트, 옐로우, 블루, 핑크, 퍼플을, 남학생은 브라운, 그레이와 블랙을 더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셔츠안에는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45.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메리야쓰(21.8%),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경우(20.1%)이었으며, 셔츠위에는 스웨터를 착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39.1%), 그 다음으로는 셔츠만 착용하는 경우(20.5%), 카디건 착용(19.8%)의 순이었다. 춘추용 셔츠 소재에 대한 주관적 선호감각을 7점 척도(1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7 대단히 선호한다)로 조사한 결과 평균 1.86부터 5.18까지의 분포를 보였는데, 촘촘하다, 부드럽다, 구김이 가지 않는다, 따뜻하다 등의 감각은 높은 점수를 보여 셔츠 소재에서 선호하는 감각들이었고, 끈적거린다, 딱딱하다, 바삭거린다 등은 점수가 낮아 선호하지 않는 감각임을 알 수 있었다. 셔츠 소재에 대한 선호감각은 성에 따라 총 23감각 중에서 15감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따뜻하다, 보송보송하다, 촘촘하다의 3감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부드럽다 등의 12감각을 여학생보다 더욱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